

언 어

김진우, 탐출판사, 1986, iii + 405면

장 경 회

외국에 제시면서도 늘 우리 국내의 언어학계를 이끌어 주셨던 김진우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고국의 학생들을 위하여 언어학 이론서를 저술하셨다. 머리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국내의 학생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이 책은 저술되었고 그러한 정성에 대하여 김진우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1부에서는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를 위한 기초 이론을 설명하였고 제 2부에서는 언어학의 이론을 하위 분야별로 공식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제 3부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언어 이론들을 설명하고 그 연구 성과들이 제시되었다. 제 4부에서는 언어와 인접과학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언어 연구에 대한 이론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언어 이론의 기초를 소개하기 위한 언어학 개론서이다.

책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 책의 두드러진 장점과 저자의 저술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언어학의 이론을 어느 특정한 언어 이론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 언어학의 두 흐름인 구조주의 언어학과 생성 언어학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으로 각 이론의 장점을 취하면서 언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언어 연구를 위한 이론으로 언어학적 이론만을 강조하지 않았고 심리학, 생리학 기타의 인접과학에서의 연구성과들도 증시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특정한 언어학 이론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언어학적 이론 이외에도 관련 과학에서의 언어 이론을 중요시함으로써 저자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언어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태도에서 저자는 책의 제목에 '언어학'이라는 용어 대신 '언어'를 선택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저자의 언어 이론에 대한 태도는 언어 연구의 초학자나 언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어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점이 된다. 이러한 장점은 책의 내용과 이론 전개과정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제 1 장 ‘언어학의 과제’에서는 언어학의 과제로 화자의 언어능력 설명이라는 생성문법의 언어 이론을 받아들였고 제 2 장 ‘동물의 언어’에서는 인간 언어의 특성에 대한 언어학적 관점을 소개한 후 동물의 언어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예시하였으며 제 3 장 ‘언어의 기원’에서는 인간언어의 기원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인간 언어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두뇌의 진화와 발성기관의 진화라는 생리학과 고고·인류학적 관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를 위하여 쓰여진 제 1~3 장에서는 언어학적, 심리학적, 고고·인류학적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어 언어를 넓은 시야 속에서 이해하게 하였다.

제 2 부에서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의 구분에서 ‘형태론’이 독립된 장으로 설정된 것이 우선 주목된다. 변형생성문법의 출현과 더불어 1960년대부터 언어학의 하위분야에서 독립되지 못하고 일부는 통사론에서 일부는 음운론에서 다루어져 왔었던 형태론이 이 책에서는 독립되어 형태소의 개념, 형태소의 유형, 조어법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통사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제 7 장 ‘구조문법’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시대의 문장 분석의 방법과 변형생성문법의 구절구조규칙 부분만을 다루었고 제 8 장 ‘변형문법’에서는 변형규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 7 장과 제 8 장의 구분이 언어 이론적 배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언어의 구조 분석과 언어의 구조의 변화라는 언어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음음성학은 음운론의 발전과 더불어 음운론에 편입되어 서술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음성학과 음운론을 각각 독립된 장으로 구별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과 음운론적 접근을 대등하게 보여 주었고 이들의 이론적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제 3 부에서는 종래에 통시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언어의 계보와 언어의 진화 이외에도 문자의 발달에 대한 학설을 여러 종류의 문자들의 예시와 더불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 4 부는 인접과학과 언어와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개략적인 설명이나 특정한 주제에 관한 설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실제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깊이있게 다룸으로써 언어학과 인접과학의 긴밀한 관련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예문으로 국어와 영어 이외에 여러 언어들을 들었는데 그 예문들이 언어 이론의 설명에 적절하며 또한 새롭고 참신하다. 이러한 참신한 예들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일지라도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언어 이론을 구조주의 언어학과 생성문

법에서 논의된 중요한 성과들을 증용의 입장에서 소개하여 현대언어학을 조감하였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언어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여 언어의 여러 면을 흥미있게 서술하였다. 언어학도는 물론 언어와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언어의 이해를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 연구사와 의미론 부분이 다소 소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언어 연구사는 제 7장의 끝부분에서 19세기 후반의 역사·비교언어학과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생성문법이 탄생되기 직전의 배경을 밝히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인류의 언어에 대한 오랜 연구사와 특히 Saussure의 업적과 그를 기점으로 한 구라파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소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의미론에서 의미 연구의 문제점은 흥미있게 서술되었는데 실제 의미 분석은 범위를 축소하여 어휘의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투사규칙과 전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화용론에 대한 짧은 언급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러 이론적인 배경에서 논의된 의미 연구를 좀더 소개했으면 언어 연구의 분야를 보다 넓게 보여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언어학 개론

남기심 · 이정민 · 이홍배, 탐출판사, 1977, 349면

국내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저서가 출간된 지 9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이 책이 우리 학계에서 담당해 온 역할을 생각해 보고 책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언어 연구의 3인의 대가에 의하여 저술되어 1인의 저자에 의한 개론서가 달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언어학 입문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변형생성문법이 출현하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으로 열띤 논쟁 속에서 언어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동안 국내에서도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부에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1970년대 전기에 변형생성문법은 국내학계에서 정착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언어학이나 영어학, 국어학 등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변형생성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어학 이론을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데에서 변형